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0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07  
2021 년 02 월 07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35679332](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35679332)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2 월 07 일

# 차례

- 1. [뭐지, 최근에혁명같은거일어났었나?] . . . . . 3
- 2. [우리의소원은통·일·이아니라권력!] . . . . . 4
- 3. [생선맡긴고양이보다도못믿을이들] . . . . . 5

은거의늘지않았건만한전반은반대로전기가부족할때마다가정용에제약을걸거나요금인상을시도하였다. 어떤정부건변하지않아왔던문제로민중은언제나부담만을떠맡아왔을뿐권리도, 결정권도가지지못하였다. 이런상황에서자본은당연히안전을방기한채발전가를낮추는데만안달이나있고그이익을대변하는정부또한마찬가지인데어떻게이런이들에게원전을맡길수있겠는가?

원전을자본과그하수인인정부의손에맡겨서는민중과지역사회를위한안전을보장할수없다. 오직그당사자인민중의의한직접통제만이재난으로부터민중그자신을보호할수있을따름이다. 지역의원전시설을지역주민에게, 이땅의모든원전을민중의손에맡기는것이야말로우리가앞으로도살아가야할이곳을깨끗하고안전한곳으로만들수있을것이다.

”” 한수원이원전수소제거장치결함은폐…전면재검검해야”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2021.html>

## 1. [뭐지, 최근에혁명같은거일어났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노동자들이직접고용을요구하며파업에돌입했다. 그리고위탁업체사용자들이이에대한입장을내어놓기시작했다. 사장님들께서는“회사가공들여키운자산을국가가가져간다”며, “공정”하지도않고, 참으로“공산국가에서나일어날법한일”이라고말한다.

우리는코뮌주의적아나키스트로써, 사적소유를부정하고, 모든소유의공동체적수용을지지한다. 회사가공들여키운자산을“사회”가수용하는것이야말로공산사회에서나일어날법한일인것은참으로옳다. 하지만우리가만들고자하는“공산”사회에서사장님들이걱정하시는일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확신에차이야기하고싶다. 우리중그누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노동자”들을감히자산이라바라보지못하기때문이다.

그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위탁사의사장들은, 자신이고용한노동자들을“자산”이라고불렀다. 이들에게당연하게이루어져야하는것인직원교육은자산의가치를높이기위한가공이었고, 노동자들이받아가는임금은당연하게도“유지비”였던것이다. 이렇게놓고보니, 콜센터상담노동자들에게생리휴가를사용하려면생리대를제출하라고요구했던, “이새끼들이인간은맞나”싶던행태도이해는간다. 기계를정비보내려면하자설명서를첨부해야하는것아니었겠는가. 사람장사를, 인신매매를하며중간착취로연명해오던사장님들이시다보니, 이제는사람이사람으로보이지않고“자산”으로보이는경지에이르신것아닌가싶다.

하지만, 이토록자기의“자산”을아끼시는사장님들께서, 원청사와의위탁계약이종료되었을때, 자기의“자산”을가지고사업장에서철수해왔는지를생각해보면, 더욱혼란스럽다. 기사에이름이언급된회사중최소절반은계약이만료되면해당사업장노동자들에게계약만료통보를보내고사라져온용역업체이기때문이다. 자기“자산”을이처럼쉽게포기해온이들이, 이제와서왜“국가가우리자산을가져가나”며“공산국가”드립을치고있는가.

아마“국가가사기업인력을빼가겠다면그에상응하는보상책이라도있어야하는것아닌가”라며“보상도없이밀어붙이는게공산국가같다”고지적한다거나, “건보일감이없어지면회사존폐를걱정해야할지경에이른다”며한탄하시는것을보니, 정규직전환에대한보상같은것을원하시는것이아닌가싶다.

노동자들이실제로“자산”이아닌이상, 한회사를퇴사하고다른회사에입사하는것에대하여, 그이전회사가보상금을요구하는것은무슨경우인가? 건강보험공단한사업장의계약을놓치면회사의존폐가위험한기업이라면, 자본주의적시장질서에따라회사가시장에서도태되는것이당연

한것이아닌가? 왜그책임을국가에묻는가? 오히려, 이러한국가에대한 요구야말로, 공산“국가”에서나일어날법한일이아닌가?

글을어떻게깎았어야할지모르겠다. 노동자를“자산”으로취급하는 사장님들의꼬라지야말로“실로자본주의국가에서나일어날법한일이아닌”지물으며끝맺을까도생각해보았지만, 그렇게말하기에는사장님들이너무국가에기생하려는시장경제의패배자임을자인하고계시니그럴수도없지않은가. 제발, 사장님들께서, 인간을자본축적의도구로바라보는시장경제의침병이되시건, 경제영역의국유화를요구하는공산“국가”의침병이되시건, 둘중하나만해주셨으면 좋겠다. 글이라도쓰기쉽게말이다.

” 건보콜센터위탁업체들” 공들여키운직원을국가가무슨권한으로 빼앗나” :

[https:// www.hankyung.com/ economy/ article/ 202102020698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206981)

## 2. [우리의소원은통...일...이아니라권력!]

문재인대통령이평창올림픽을거론하면서남북평화와남북이하나되는것을바란다는말을오늘했다고한다. 우선지난평창동계올림픽을비롯한수많은올림픽들이실질적으로국제자본의돈놀이판이자애국심고취의장으로서활용된것은둘째치고서라도, 그가’ 남북평화’ 를바란다는것은진정가증스럽기그지없다.

문재인대통령을비롯한수많은남한의소위’ 통일’ 을외치는자들은, 남한의기술력과북한의자원혹은인력등을운운하거나, 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을운운하면서통일의당위성을설파한다. 남한경제에큰도움이된다는것이다. 그런데이는실질적으로남한주도통일을넘어서, 남한이북한을마치식민지통치를하는듯한느낌을주지않는가? 마치국제자본주의가개발도상국의자원과인력을싸게부러먹는것을국가가정당화하고애국적인양띠워주는것처럼말이다.

이는비단남한측에만국한된문제는아니다. 북조선의위대하신수령동지와그를따르는관료, 군인동지들에게도해당되는말이다. 소위말하는미제국주의에맞선선군정치라는가소로운착취와탄압수단은차치하고서라도, 정권과국가의생존을위한수많은패악질과소위말하는’ 민족해방’ 은도리어그스스로의인민을잡아먹을뿐이다. 또한과거의사례를비취보았을때, 정권의생존에이롭다면남한부르주아들과의경협도기꺼

이받아들이니그들도한평화와통일이아닌, 그저국가권력과관료집단의생존을위해움직이는것뿐이다.

만일문재인과소위’ 통일’ 을주장하는사람들, 그리고민족해방과민족의통합을주장하는북조선의지배집단이진정으로평화와통일을원한다면그들은그들스스로를해체하고국경을해체하며, 노동자인민이온전히모든것을통제할수있도록해야한다. 남과북의노동자대중이자유롭게오가며서로의필요한점을채워주며, 국가권력과자본의부당한개입없이온전히그들인민들이교류할수있어야한다.

그런것이아닌소위’ 통일’ 과’ 평화’ 를위한움직임은, 그저정권유지를위한. 그리고국가와’ 자본주의’ 유지를위한양측의쇼일뿐이다.

” 문대통령” 평창에서시작된평화, 남북하나될희망키워” :

<http://naver.me/FGor5jqr>

## 3. [생선말긴고양이보다도못민들이들]

원자력발전소사고의원인이될수있는수소의제거를담당하는피동형수소제거장치에결함이있을수있다는문제가제기됨에도이를담당하는한국수력원자력이이를축소, 은폐하려한정황이포착됐다. 지난날후쿠시마원전사고의원인이수소제거장치고장으로인한폭발이었던점을생각하면참으로아찔하면서도분노를금치않을수없는일이다. 이것이문재인정부의소위탈핵정책이란말인가?

이번문제만이아니더라도모든역대정부는원자력발전소안전문제에대해비용을문제삼아가며안전의무를방기하는태도를취해왔다. 이전정부부터가노후화된고리원전 1 호기를중단하는것과같은위험방지에필수적인안전조치를취하는것에극히보수적으로대응해왔고탈핵을공언한문재인정부조차고리 2 호기등추가적인노후원전의연장가동선택지를만지작거리고있는등그들이짓는것과는반대의자세를취하고있다.

이문제의가장비극적인점은당사자와결정권자가완벽하게유리되어있단것이다. 원전문제에있어위험과비용을직접적으로감수해야할지역사회는이에대한사결정과정에서기껏해야’주민의사를존중하겠다’는기만적인소리나들을뿐어떤권리도가질수없다. 민중은어떤가? 작금의사건이보여주는것과같이방기된안전으로인해가장큰피해를보는것은민중일것임에도불구하고정작권리는누려오지못했다. 우파들이부르짖는원전의값싼전기는언제나’산업용’전기였고그혜택을누릴수있었던이들은당연하게도민중이아니라자본이었다. 지난 10 년간의전기사용증가분에서대부분이산업용, 서비스업용이었던반면가정용전기의사용량